

## 동양선교교회

# 성도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네번째 글

### 2월 정기공동회의 정회했다, 폐회했다. 편할대로 주장

#### 정기공동총회도 임시공동총회도 아닌 의미없는 회의

박제임스(한국명 박석재)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은 지난 5월 16일 그들이 주장하는 2010년도 정기공동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원래 2010년 정기공동회의는 2009년 12월에 소집하도록 우리 교회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6명의 장로들이 주도하는 당회는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를 들어 2달 뒤인 지난 2월 21일에 열었었습니다. 그날, 사회를 맡은 박제임스장로는 발언권을 주지않아 이를 항의하는 발언자와 원로 장로 등의 건의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결국 적당한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채 어떻게 할 수 없게되자 스스로 강단을 내려 왔습니다. 갑자기 사회자가 사라져 버리자 그날 공동회의에 참석했던 교인들은 스스로 사회자를 뽑아 회의를 속개, 사실상 정기공동회의는 무난하게 끝을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제임스장로는 그 다음주 예배시간에 강단에 올라가 그 공동총회는 불법이며 자기는 정회를 선언하고 나왔기 때문에 통과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변호사들과의 대화모임이 열렸던 날인 지난 3월 9일 박제임스 장로는 그 자리에서 “그날의 정기 공동총회는 동의와 제청을 받아 내가 폐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입으로 두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말의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만일에 박제임스장로가 처음 주장했던대로 정회를 선언했다면 바로 속개했어야했습니다. 그런데 아무일 없던 듯이 지나다가 몇달이 지난 지난 5월 16일에 정기공동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그리고 지난 2월 21일에 이미 통과시켰던 올해 예산안과 제직투표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만일 그가 교인들과 변호사들 앞에서 두번째 말한대로 정기공동회의를 폐회했다면 이번 공동회의는 정기가 아니라 임시공동회의가 되며 우리 교회 헌법은 임시공동회의는 미리 회의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제를 공고한 일이 없기때문에 이번 회의는 아무런 의미없는 회의가 된 것입니다.

### 교인들의 반발로 시작도 못한 공동회의

####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당하는 수모 겪어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은 법을 좋아하고 항상 법을 내세웠는데 막상 그들의 문제에서만은 이처럼 법에도 맞지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다”, 즉 “내가하면 합법이고 네가하면 불법이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신성한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

나 이런 불법이 통용돼서도 안되며 통용되지도 못했습니다.

이날 공동회의는 참석한 교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시작도 못한채 그나마 박제임스장로측에서 부  
른 경찰에 의해서 강제 해산돼 의미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박제임스, 임목사님이 집사들의 강요로 서명했다 주장**

**임목사님, “새빨간 거짓말이다” 비난하자 마이크 꺼버려**

이날 공동회의가 무산된 것은 박제임스 장로가 느닷없이 3부 예배 광고시간에 강단에 올라가.  
“임동선 원로목사님이 집사들의 강요에 못이겨 서명을 했다”고 주장한데서 비롯됐습니다. 박제임  
스장로의 이 말이 진행되는 사이, 때마침 임동선 원로목사님이 예배당으로 들어 오셨고 이어 강  
단에 올라가 “박제임스장로의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고 교인들에게 밝혔고 이에 관한 설명을  
계속하자 이번에는 박제임스장로가 강단에서 마이크를 끄라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고 마이크  
가 꺼지자 교인들이 달려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겨우 복원돼 임목사님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교인 여러분! 어떻게 원로목사님이 더구나 자신에 관한 왜곡된 사실을 밝히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끄라고 명령하는 장로가 어디에 있으며 또 마이크를 끄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이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20여명의 시큐리티 가드 동원**

**교인들 “박제임스, 내려오라” 분노의 함성**

교인들은 이때부터 박제임스 장로에 대한 불신의 표시를 내보이기 시작했고 이어 새벽부터 교회  
한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20여명의 시큐리티 가드가 들어와 강단을 포위하자 일제히 “가드는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가드들이 교인들의 외침으로 주춤하는 사이 이번에는 신성한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박제임스장로는 “내려오라”고 소리쳤으며 이 외침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산 될때까  
지 계속됐습니다. 한마디로 교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박 제임스장로가 말하는**

**임동선목사님의 강권에 관한 서명의 진상**

**규정에 따른 공동회의 결과 주정부에 보고한 것.**

**박제임스, 해명들었으면 당연히 사죄했어야**

지난 3월 28일 임시공동총회에서 임동선 원로목사님을 임시당회장으로 선출했었습니다. 원래 이  
같은 인사변화가 있을 경우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에 의해서 이날의 결  
과를 주정부에 보고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보고는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이 자기들 멋

대로 교회재산을 은행에 저당하거나 팔아먹는 불법적인 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목사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셨으며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박제임스장로는 이것이 불법이며 강권에 의한 것이었다고 왜곡해 주장한 것입니다. 더구나 원로 임목사님이 전체 교인들앞에서 공개적으로 새빨간 거짓이라고 밝혔으면 그자리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즉각 사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 명백한 사실을 숨기기위해 마이크를 고도록했으니 어떻게 그를 장로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들 장로들이 불법입니다. 지난해 장로들은 당시 이사장으로 등제돼 있던 임동선목사님을 찾아가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라면서 이사장직을 사임해달라고 진짜로 “강요”했습니다. 이에 임목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서명을 했고 나머지 이사로 남아있던 한건수, 김광돈 장로에게는 임목사님을 통해서 사표를 내도록 강요, 모두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사로 남아있던 노수정장로가 자기 임의로 나머지 당회원 11명을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사라는 주장자체가 불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은 자신들이 저지르고 남이 한 일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반대 안수집사, 사역장로, 권사 후보 모두 프린트물서 삭제**

#### **법원, 노수정장로가 혼자 11명의 이사를 임명한 것은 불법**

지난 5월 16일에 배포한 2010년 공동회의 인쇄물을 보면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6명 장로들의 좁은 소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프린트물에는 그들을 반대하는 안수집사들의 이름을 모두 빼버렸습니다. 뿐만아니라 권사 후보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지난 2월에 만들었던 공동회의 책자에는 모두 기록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들 명단 아래에 “본 명단은 전산교적부에 근거, 12월 31일 기준으로 출력한 것입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박제임스장로가 말끝마다 붙이고 있는 징계는 그보다 훨씬 뒤인 지난 4월 11일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31일자라면 당연히 그 이름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입니다. 이 명단에는 또 헌법에 규정돼있는 사역장로의 이름도 없습니다. 지난 3년동안 교회에도 잘 나오지 않았지만 강준민목사때도 안수집사의 명단에서 강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빼지는 않았습디다. 사역장로의 명단도 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 우리 장로들의 좁은 소견보다 훨씬 더 넓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장로와 안수집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평범한 기독교적인 원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결국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은 기독교적인 원리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우리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른곳에 교회차리고 장로 뽑은 다른교회교인들이다**

## 집사들이 당회를 없애려 한다, 박제임스 허위주장

박제임스장로는 이날 사회를 보면서 “여기있는 사람들은 다른곳에 교회를 만들고 장로도 뽑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인들이 아닙니다”라고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박제임스 장로는 이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주로 3부예배)를 드리고 신학교에가서 특별기도모임을 갖는 것은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 순진한 교인들에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다면 왜 동양선교교회에 와서 시끄럽게 하겠습니까? 동양선교교회는 영원한 우리들의 교회이고 그래서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장로들이 잘못 당회를 운영하기때문에 바로 고치라고 이처럼 외쳐대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라면 당회가 교회를 말아먹든, 교인들을 징계하든, 목숨걸고 싸우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박제임스장로는 또 “이사람들이 당회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장로들의 위장 선전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회의 회복을 위해 강준민목사와 3년동안이나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당회를 없애려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한번도 당회를 없애자고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6명의 장로들이 당회를 잘못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을 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교인들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치리의 권한을 가진 당회의 책임입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는 지지 않고 치리의 권한만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몰아부치기 위해서는 무슨말이든, 무슨법이든, 무슨 규칙이든, 자기를 편한대로, 입맛에 맞는대로 적용하고 주장하고 끌어다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교회적인 것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당회의 현실입니다.

## 홍성식장로 당회원 사퇴, 쉬쉬하며 교인들에게 숨겨 내년에는 시무장로 6명이 우리교회 치리하게 된다.

지난 5월 8일 홍성식 장로님이 정식으로 당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이 주도하는 우리 당회는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습니다.

홍장로가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 당회는 지금 8명의 장로들만 있는 초 미니 당회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강준민목사가 떠날 때 우리당회는 12명만 남았었는데 노수정장로가 물러나면서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에 제임스장로가 주도하는 당회는 그들에 반대하는 정영식장로에게 1년간 시무장로 정지 처분을 그리고 안광석 장로에게 6개월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때문에 실질적인 당회원은 9명이었는데 홍장로가 사임했으므로 이제 8명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데 있

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은 시무장로는 3년간 시무한 뒤 1년을 쉬게 돼있습니다. 금년말에 3년이 돼서 당회를 떠나야 하는 장로님들이 모두 4명입니다. 박제임스, 안광석, 홍성식, 엄문섭 장로 등입니다. 홍장로는 이미 당회를 떠났고 불법으로 징계중인 안장로를 포함해서 3명이 나가면 당회원은 모두 6명만 남게 됩니다. 내년 한해동안 6명이 우리 교회를 치리하는 이상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진 교인들은 이런 이유로 장로들을 더 많이 피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장로 등 6명은 그들의 아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런 이상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교회의 시무장로는 50여명에 이르렀었습니다. 강목사때는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명이 돼도 좋다는 것이 이들 장로들의 배짱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망하던, 흥하던 나오는 상관없고 단지 시무장로직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 8만불 왜 제직회보고에 누락됐었나?

#### ‘입금시켰다.’ ‘안먹었다’만 되풀이

지난 5월 14일 금요일에 열렸던 제직회에서 채홍인 장로는 “내가 돈을 먹었다고 말한다”면서 불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채장로가 교회돈을 먹었다”고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채장로는 또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면서 “오후학교의 8만달러가 틀림없이 교회 구좌에 입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장로는 참으로 말의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먹었다”, “안먹었다”. 또는 그 돈을 “입금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2월의 제직회 보고때 그돈이 입금돼서 이렇게 사용됐다는 설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해서 제직회 보고서에는 2만달러만 입금됐다고 했을 뿐 나머지 8만달러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교회 구좌에 8만 달러가 입금됐으면 제직회보고에 당연히 어떤식으로든지 그 액수가 표시됐어야 하는데 보고서에 흔적조차 없습니다. 입금이 없으니 지출의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문인데 “안먹었다”와 “입금됐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뜻을 모르는 안타까움만 있을 뿐입니다.

**동양선교교회 형제 자매여러분!**

동양선교교회는 박제임스를 비롯한 엄문섭, 이세훈, 박환, 이영세, 채홍인 등 소수 장로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번의 뼈아픈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성숙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몇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을 용납하지 말고 깨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판단하는 성숙된 교인들이 돼야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들 소수의 장로들에 의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 가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 동양선교교회 수습대책위원회

###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헌금을 하면 그 돈이 몽땅 시큐리티 가드 사용비용이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되고, 그나마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강목사밑에서 수 백만달러에 이르는 우리들의 헌금을 빼돌린 하수인인 장주영 재정국장이 하는 설교를 매 주일마다 들어야하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 가지조차 싫다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없고 싸움만 있는 교회는 싫다는 교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감안, 우리가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비상대책 특별기도회를 갖고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1시 월드미션 신학교 대 예배실에서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와서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수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모임입니다.

이 특별기도회에는 우리교회에서도 시무하셨던 김성웅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열정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리고 능력있고 감동을 주는 설교가 매주일 이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흥회에 온것 같으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기도회를 바로 우리들의 모임인, 초대교회의 믿음을 그대로 실현하는 모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도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직접찾아 오시고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면 213-703-5700이나 213-820-855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선교교회 비상대책 특별기도회 안내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시

장소 : 월드미션 신학대학교 6층 대예배실.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 전 교인들에게 배부되고 큰 파장이 일자, 박제임스를 비롯한 6명의 장로들은 예배시간에 사회자를 동원, "배달된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등 당황해 하면서 진화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글의 모든 내용은 철저한 사실검증을 마친뒤 게재한 것입니다. 만일에 의문점이나 더 알고 싶은 분 또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계신분은 213-703-5700이나 213-820-

855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